

● 자유 토론

- 구청장: 행복키움이 상담학생 중 또래 내 멘토-멘티를 정해 멘토링 시행하며 '학교 밖 아이들'에 대한 관리 방법도 다각적으로 찾아보도록 함
행복키움이 성과 사례에 대한 스토리북 제작 권유
- 동산초: 학생들이 교사들에게는 말 못하는 이야기를 행복키움이 상담을 통해 풀어 놓는 기회를 갖게 됨
- 봉래초: 학교에 전담 상담사가 있어야 하며, 상담 공간도 별도 있어야 함
- 청구초: 완고한 부모하의 학생은 학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학부모 대상 인식개선교육이 우선 추진되었으면 함
- 남산초: 문제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색다른(토끼밥주기) 책임을 부여했을 때,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경우가 있었음
학생에 대한 관심을 밑바탕으로 하는 행복키움이 상담은 학생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침.

● 추후 계획

- 행복키움이 스토리텔링북 제작
- 행복키움이 사업학교 8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를 위한 상담인력 증원

● 소요예산 : 880천원

- 협약서 16조*55,000원=880,000원

관련사진



끝.